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비와 용서라는 대승의 길 걷길”

천주교, 사형폐지 입법청원

“또 하나의 생명 사라진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작년 말부터 벌여 온 사형폐지·종신형 입법청원을 본격화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주교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사실에 누구라도 동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배 주교는 “상상조차 힘든 흉악한 살인으로 인해 아무 이유 없이 생명을 잃은 당사자의 가족에게는 이 상식을 순하게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잃은 생명을 살인자의 생명으로 되갚는 응징의 길만이 이 억울한 일

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이미 커다란 아픔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아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라면서 “그분들에게 참으로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귀한 생명을 잃은 결과로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엄보같은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자비와 용서라는 대승의 길을 걸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청했다.

사형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의 심정도 헤아렸다. 엄청난 범죄와 속수무책의 만행 속에 불안해지는 이들에게도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나 배 주교는 “사정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인간이 걸어야 할 더 귀한 길, 곧 생명을 아끼는 길에 더 큰 마음으로 다가서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간의 일이지만 인

간적인 것을 넘어서야 이뤄질 이 사형폐지운동에 하늘의 감도가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수환(1922~2009) 추기경을 비롯해 한국 천주교회는 꾸준히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00년에는 대희년(大禧年)을 맞아 그해를 ‘사형폐지의 해’로 정하고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입법청원에는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해 천주교 대주교,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10만5179명이 서명했다.

대한민국은 2017년 12월30일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인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2017년 기준 법률적,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23개국에 이른다. 같은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3개국이다. 지난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현재는 1996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뉴스

왜곡된 결혼문화 인식 개선에 ‘앞장’

인터넷 ‘웨딩TV’ 개통... 저출산·결혼문화집중보도

저출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터넷 신문 ‘웨딩TV’가 창간했다. 6000개에 가까운 인터넷신문 가운데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웨딩TV가 유일하다시피 하다.

‘저출산’과 ‘결혼문화’가 웨딩TV 저널리즘의 핵심이다.

웨딩TV는 “저출산에는 사회구조적 원인이 있지만 왜곡된 결혼문화, 특히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드는 한국적인 결혼방식도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

의 인식을 개선하는 보도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웨딩TV는 저출산 정책의 내용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저출산 관련 이슈들을 정리한다. 지자체와 기업의 저출산 관련대책을 전한다. 한국 결혼문화의 면면을 분석, 제언하면서 실용적인 결혼정보도 제공한다. 각 분야 전문가, 대학 신문사 기자와 복지전문 학생 등도 참여하는 “저출산 시대 희망뉴스, 결혼문화 전문인론”을 표방했다. /뉴스

시대는 달라져도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손다이크 ‘현금의 재발견’ 번역·출간

윌리엄 손다이크의 ‘현금의 재발견’이 번역·출간됐다.

손다이크는 미국 하버드대와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개인자산 관리 기업인 후사토니 파트너스를 창립했으며 현재 8개 기업, 2개 비영리기구의 디렉터다.

손다이크는 하버드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하버드 MBA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8년간 찾고 분석했다. 기업 경영에서 잭 웰치 전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 이상의 성과를 거둔 CEO 8인을 찾아냈다. 세계적인 갑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8인에 들어가 있었다. 이들이 어떻게 리더가 되었는지 그들의 연대기와 함께 경영목표, 전략 등이 담겼다.

손다이크는 “지난 50년간 웰치보다 더 뛰어난 성과로 회사를 경영했던 8명 CEO에게는 놀랄게도 공통점이 있었다. 핵심은 성장이나 매출이 아닌 ‘가치·수익의 극대화’라고 짚었다. “저성장 시대의 계속된 불황에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8인의 리더들이 주목했던 경영의 본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시대는 달라져도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1986년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차보고서에서, 워런 버핏은 CEO로 보낸 첫 25년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배운 가장 중요하고도 놀라운 교훈에 대해 언급했다. 그것은 절대 또래집단의 압박 같은 것으로, 업계에서도 CEO들이 다른 경쟁자들을 모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이상한 기운이 있다는 것이었다.

버핏은 곳곳에서 출몰하는 이 강력한 기운을 ‘제도가 가하는 압박’이라고 이름붙이고, 유능한 CEO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책에 나오는 CEO들은 모두 이 강력한 압박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은 경영철학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이는 조직과 문화에 스며든 가치관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자본을



배분하는 의사결정을 이끈다. 그들은 각자 독자적으로 경영철학을 세웠다. 그런데 매우 희한한 부분은, 각자 업종과 환경이 아주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영철학이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는 것이다”

“CEO란 장기적으로 주당가치 최적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게 그들의 핵심 가치관이었다. 조직 성장시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더 큰 기업 경영자들일수록 대체로 연봉이 더 높은 경향이 있고 명망 있는 위원회나 클럽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를 줄이려는 기업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이 책에 나오는 거의 모든 CEO들은 자사주를 매입해 주식 기반을 현저하게 축소했다. 아울러 자신을 매각하거나 기업을 분할해 규모를 줄여나갔고, 성과가 시원찮은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접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결국 성장은 주주 가치 극대화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혜경 옮김, 312쪽, 1만8000원, 마인드빌딩 /뉴스

순창 이용옥 계장, 시집 ‘신들의 계보에 초대된 나날’ 출간

최근 순창군 공무원이 시집을 출간해 화제다. 그 주인공은 경제교통과에 근무하는 이용옥 계장(59)이다.

이번에 출간된 시집은 ‘신들의 계보에 초대된 나날’ (전북문협출판사)로 이용옥 계장의 삶과 에피소드를 담았다. 총 100여편의 시로 구성된 이 시집은 강천산과 섬진강, 저자의 고향인 동계면 내렁마을의 기억을 서정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순창 지역들과 고향 사람들의 묘사, 여행에서의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시 한편으로 담아내며 독자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존귀함과 경건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용옥 계장은 “바쁘게 살았던 공직생활중에 시는 내가 마음을 기릴 곳이었다”며 “잠시 스쳐가는 기억들을 시로 담아내도록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옥 계장은 2003년에 전남과학대학교목과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농학과, 국어국문학과, 일본학과를 졸업해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또한 2011년 한국문화정신 문단에 등단했으며, 전북문협, 월천문화, 가람문화, 들머리문화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순창=이원형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